

지탄받던 주지 선거 만장일치 추대 전환

조계종중앙총회 산중총회법 개정안 수정 통과

앞으로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이 선거가 아닌 합의 추대 방식으로 바뀐다. 그간 선거를 통한 폐해가 많았었는데 대한 대안이 입법화 된 것이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보선)는 9월 18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에서 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종단 쇄신위원회가 제출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종법 개정에 따라 조계종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은 선거가 아닌 만장일치 합의 추대 방식으로 바뀐다.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선출을 위임하게 된다. 후보자 1인이 등록할 경우에는 산중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선출하며, 2인 이상 등록시에도 만장일치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만장일치로 간주한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주지를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 투표, 다수결 결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 구성은 산중 고유 방식이나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11인 이상 21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

며, 추천위원장은 산중총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회의를 개최하고 2/3 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당해교구 재적승 중 비구는 종덕 이상이 며, 비구니는 2년 이상 재적 중인 말사 주지를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비

추대 형식 선출 골자

비구니 참종권 확대

비위행위 제약도 명문

구 구성원의 1/5이 안될 경우는 1/5만큼 정적 이상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 순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본사 주지 자격을 법계 종덕 이상, 승랍 25년 연령 70세 미만인 중무행정, 입법, 사법의 경력을 충족하게 했다.

선출에 있어 이뤄진 비불교적 행위에 대한 제제도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자나 산중총회 구성원, 추천위원은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 금품 및 재산 상

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금품이나 매관매직 등을 행했을 경우 공권정지 5년의 제재를 받게 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했을 경우 공권정지 2년에서 5년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위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본사 주지 선거는 1994년 종단 개혁으로부터 시작해 18년 간 유지된 제도로 그간 공권선거 및 선출과정에서의 불합법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으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법안을 발의한 종단쇄신위원회 간사 덕문 스님은 "그동안 수많은 본사주지선거에서 금권선거의 폐해가 빚어져 종단의 신뢰가 추락하는 큰 원인이 되어왔다"며 "이번 쇄신안은 추천제의 도입과 함께 본사주지 선출과정을 단 하루 정도의 시간으로 단축시켜 대표행위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쇄신위 부위원장 법안스님도 "산중총회법 쇄신안이 위원회가 노력한 첫 성과"라며 "총무원장 선출을 포함한 선거제도개선 >정규제정 >종단총무쇄신 >승가복지제도 등 쇄신의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봉은사 제마원 학교 신축 준공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9월 20일 미얀마 바간주 나중우 지역 제마원 사찰에서 학교 신축공사 준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사진 왼쪽)을 비롯해 현지 프로젝트 진행단체인 프라미스 상인이사 묘장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제마원 주지 우 아데익사 스님(사진 오른쪽)을 비롯한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불자들은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미얀마 앙곤, 바간, 만달레이 등에서 성지순례도 진행한다. **관련기사 5면**

서로 대치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문도인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이 불교계 인터넷 언론에 반박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고 저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불교 지성의 場 '불교평론' 폐간되나

21일 편집회의... 겨울호부터 발간 중단

한국불교의 논단이자 지성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이 폐간된다.

홍사성 <불교평론>편집인은 "〈불교평론〉 폐간을 이미 결정했고 이번 겨울호부터 제작하지 않는다"며 "경허 열반 100주년을 맞아 다양하게 스님의 삶을 조명하려 했지만 수덕사와 신홍사 스님들에게 누를 끼쳤다. '유구무언' 이다"고 말했다.

폐간의 결정적 이유는 2012년 가을호에 실린 경허 열반 100주년을 맞아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기고한 '경허의 주석과 삼수갑산'이 문제가 됐다. 수덕사 측이 이에 대해 항의했고, 발행처인 만해실천선양회에서 폐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불교평론> 측은 서점에 입고 된 서적들을 회수 조치했으며, 개인 회원들에게는 편지를 보내 책을 다시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9월 21일 열린 편집회의에서도 '올해의 논문상' 등 잔여 사업과 내년 사업 백지화, 이미 청탁한 원고 정산에 대한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평론>의 폐간 결정에 후폭풍을 맞은 것은 수덕사와 경허 100주년 기념사업회다. 문중 어른인 경허 스님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논쟁이 아닌 사적인 항의로 대응해 폐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의 한 스님은 "〈불교평론〉측에서 저간의 사정

경허선사 관련 기고 문제

수덕사, 책 회수 요구

"건전한 논쟁했어야" 여론

을 설명·사과했고, 수덕사 측은 '참회한다면 책을 회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폐간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중이 제기한 문제의 요지는 기고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지가 있는 보도자료를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간 언론에 배포한 데 있다"며 "논쟁이 있다면 논쟁으

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문도인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이 불교계 인터넷 언론에 반박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고 저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폐간의 여파는 당장 경허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에도 미치고 있다. 10월 중 열리는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K교수가 발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교계 여론도 부정적이다. 건전한 학문적 연구와 논의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불교계 출판 관계자는 "매체에서 제기된 학술적 논쟁은 매체 안에서 건전한 비판과 의견 개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발행처에 항의하고 책을 회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1999년 겨울호로 시작된 계간 <불교평론>은 지난 10여 년간 적박했던 한국불교학계에 건전한 논단을 제공해왔고, 2009년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9회 대인상 재가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종일 기자**

907호 INDEX

종합 2·3
10·27 법난위 정상화 촉구 조계종 '비구니의원 연구회 발족' "전통사찰 중흥규계 풀어야" 조계종 '야단법석' 첫 마당 "동대 경주캠 강도 높은 구조개혁"

시방세계 5
봉은사 미얀마에 신축교사 준공



신행 6
추석맞이 특별템플스테이

지역 10
일본 조동종 참사문비 제막식

부처님 10대 제자에게 배운다 14
수보리 <상>

나의 신행 나의 서원 16·17
안청정행 보살

세계에 간화선 정수 전한다

종정 진제 스님, UN세계종교지도자 초청 법문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사진)이 간화선법의 우수성과 평화의 방법을 세계에 전한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오는 10월 4일 UN플라자 빌딩에서 UN세계종교지도자 모임 초청 법회를 진행한다.

이번 법회는 UN의 NGO로 등록돼 있는 New York Interfaith Center, The Temple of Understanding, The Riverside Church of New York 등 단체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진제 스님은 세계 종교지도자들에게 평화를 위한

법문을 설한다.

진제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세계평화와 생태학적 위기: 불교의 견해'라는 주제 법문을 설하며, 동양 정신문화 골수인 간화선을 통해 전쟁, 갈등, 억압, 빈곤과 자연환경 파괴 등의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법회에서는 세계종교지도자 및 국제환경운동가 50여명과 각국 대사관 관계자 20여명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하며, 법문 과정에는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된다.

진제 스님은 법회 참석을 위해 10월 1일(한국시간) 출국해 10월 3일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담임목사 더글라스 코어 주재 만찬 참석, 10월 4일(현지시간) UN 세계종교지도자 모임 및 법문, 10월 5일(현지시간) 이슬람지도자 초청 만찬 참석 등 4박 6일의 일정을 마친 뒤 10월 6일(현지시간) 귀국한다. **신종일 기자**

왕자의 권세도, 깨달음조차도 버리고 일을 선택했던 왕자 승통!

'천둥이 진동하듯, 비와 아슬이 천지를 적시듯'
과감하고 단호하게 일을 해냈던 일꾼 의천!

그는, 역사상 가장 방대한 불교 문헌결집을 이룩한 문헌전문가요, 평생 강연을 쉬어본 적이 없는 교육자였으며, 다섯 임금을 모시고 국가 경영의 중심에 선 정치가요, 승통으로서 불교 종단의 개혁을 꿈꾼 위대한 개혁가였다.

누구나 일은 한다. 일이나 일꾼이라면 그래서 특별한 것도 없다. 하지만 의천이란 인물이 특별한 까닭은 그의 일이 특별했기 때문이고, 그의 선택이 특별했기 때문이다.

각령기를 거머쥔 권력자이고, 지식과 문화의 전통은 지리멸렬, 단절되어 잊혀져버린 시대. 장소(章疏)의 전통과 그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던 시절, 의천은 그런 전통과 가치를 복원하고자 노력했고, 마침내 천 년의 세월과 아시아 대륙을 밀라하는 엄청난 일인 문헌집성을 이룩하였다. 그 규모와 배부를 상상하면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의천이 이룩한 수많은 일들은 그 시대 난리통에 흔적도 없이 불타버렸고, 의천의 일도 까맣게 잊혀진 지 이미 오래. 저자는 남아 있는 기록과 흔적을 찾아 마치 퍼즐조각 맞추듯 의천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오윤희 지음, 400면, 20,000원



동아시아 지식의 보고 고려대장경. 천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기려진 오해와 진실.

대장경에 담긴 고려인의 정신세계, 지혜의 큰 그릇으로서의 대장경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